

이재상

변호사시험대비 Step 2

강의계획서

박 사 형법

진도별모강

최근 3년간 최신판례 중에서도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판례를 반영한 문제구성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집약한 문제구성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2016년 8월까지 공보에 게재된 최신 중요판례로 지문구성
사례형 답안작성법의 실전적 적응력 체득
변시 기출 및 법전협 모의시험 출제지문 진도별 정리

일 정

2016. 10. 6(목) ~ 10. 19(수), 총 10 회, 월~금, 오후

시험 오후 1시 ~ 2시 30분

강평 오후 2시 45분 ~ 5시 45분

※ 상황에 따라 15분 정도 연장강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 재

- 진도별 모의시험 문제+해설 (제공)
- 2016년 6월·8월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해설자료(선택형·사례형)
(제공, 해설지에 진도별로 정리)
- 제1회~5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해설자료(제공, 해설지에 진도별로 정리)

**출 제 경 향
및
향 후 전 망**
제5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의 분석 및 향후 전망
1. 선택형 문제

-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0문제(25%),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2문제(30%)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4회 변호사시험과 비교하면 형사소송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1문제, 각론 7문제, 특별형법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특별형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론중심의 총론의 비중이 판례 중심의 각론의 비중 보다 여전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이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쟁점 중의 하나인 '우연방위'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출제되었는데, 각 학설의 내용과 비판점까지 지문화 하여 물어 봄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되었습니다.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영역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그 형식은 사례형 문제에 바로 가져다가 써도 될 정도로 문제구성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소수설의 내용까지 물어 보았다는 것이 특이한데, 이로 인하여 문제의 난이도는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5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의 상승은 앞으로도 바뀔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7문제는 대부분 판례로만 구성되었으나,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항도 눈에 들어옵니다.
- 판례를 지문화한 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4회 시험에서는 누구나 예상했던 A급 또는 특A급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이 여러 개 출제되어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5년도 최신 판례도 몇 개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대부분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나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역시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 지난 시험들에 비하여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 제 경 향
및
향 후 전 망**
2. 사례형 문제

-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50점, 형소법 5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지난 4회와 마찬가지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배점이 동일합니다. 형법의 배점이 1~3회에 비하여 줄어들면서 형사소송법의 중요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 제1문의 주요 쟁점으로는 특별형법인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직접성의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간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교통사고와 관련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와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리관계,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법상의 관련쟁점, 유기죄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제1문은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던 제4회와는 달리 총론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쟁점이 각론상의 쟁점들과 엮으면서 완성도 높게 출제되었다는 점과 특별형법에서 자주 다루던 아주 중요한 쟁점이 특가법위반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엮은 만큼 난이도와 완성도에 있어 대단히 높은 수준 높은 문제를 조합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 제2문 역시 방실험입죄와 합동절도를 정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와 엮으면서 무죄의 논거를 제시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이론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쟁점입니다. 게다가 정범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조범이 성립하는 논거를 물어봄으로써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갈을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부를 물어 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사시 51회 2차에서 이미 출제된 바 있는 쟁점입니다.
- 사례형 문제 역시 지난 4회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가 한층 올라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 제 경 향
및
향 후 전 망**
3. 이후의 형사법 공부방법

-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형법각론이 아니라 총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엮어서 출제되었는데, 그 만큼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가 상승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향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제 출 제
기 준 과
구 성 방 법**
1. 선택형 문제 출제 및 구성

- ① 선택형 문제는 20문이 매일 출제됩니다.
- ② 모든 선택형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판례와 최신판례 등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최근 변사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사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출제됩니다.
 - * **최근 3년간 최신판례 중에서도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판례를 반영한 문제구성**
 - *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집약한 문제구성**
 - *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 * **2016년 8월까지 공보에 게재된 최신 중요판례로 지문구성**
- ③ 선택형 이론문제를 위한 최적화된 형법이론을 모두 점검할 것입니다.
 -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변사나 사시의 이론문제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에 최적화된 이론문제를 구성하겠습니다.
- ④ 모든 기출지문에 대한 해설 뒤에는 변사, 사시, 법전협 모의고사, 법원행시 등의 기출표시를 하여 출제지문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기출표시는 누적된 만큼 그대로 표시됩니다. 누적된 기출표시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⑤ 매일 변호사시험 1화~5화 기출문제와 2016년도 법전협 모의고사 제1, 2회에서 출제된 선택형 문제 중 해당 진도범위의 문제들을 보충문제형식으로 제공하고 상세한 해설을 해설지에 수록하겠습니다.
 - 회차 별로 5~8개 정도의 문제 분량이 될 것입니다. 진도별로 정리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 보게 되면 실전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문 제 출 제
기 준 과
구 성 방 법

2. 사례형 문제(100점 기준) 출제 및 구성

- ①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출제함으로써 형법이론체계를 머리 속에 확실하게 세우고, 이를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연습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가능케 하여 변사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형법공부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제5회 변사에서 모든 기출쟁점들을 100% 적중함으로써 그 수험적합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② 출제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채점의 포인트까지 점검하여 반드시 합격하는 답안의 작성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 ③ 최근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출제유형의 변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과 그것이 압축된 실전답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풍부한 내용고찰과 아울러 실제 답안지에 기입할 적정량의 답안내용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④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통합형 문제 출제 및 구성

- ① 무려 10문제나 출제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문제는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그런데 통합형 문제는 그 본질이 객관식 사례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② 선택형 20문 중 매일 2~3 문제는 객관식 사례로 출제하여 통합형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강의를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문 제 출 제
기 준 과
구 성 방 법**
4.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의 학습

- ① 선택형 문제와 동일하게 사례형 문제에서도 법전협 모의고사는 사례형 문제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 ② 참고로 2015년 제1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제3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의 성부”가 출제되었습니다.
- ③ 물론 이 쟁점들은 변시 5회 시험에서 사실관계만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 ④ 2016년도 법전협 제1, 2차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해설을 4차례에 걸쳐서 모두 제공해 드리고, 강의시간에도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강 의 진 행

1. 강의는 문제에 대한 강평 및 해설강의로 진행됩니다.
 -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적 쟁점과 학설의 대립을 간단명료하게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개별적인 총각 쟁점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형법이론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형법강의를 할 것입니다.
2. 형법체계론의 확실한 정립을 목표로 선택형 문제의 중요지문 위주로 해설하면서 그 의미내용을 익히고, 문제풀이방식을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사례형 문제와 관련하여는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이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가를 연습하고, 이를 효율적인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강 의 특 징

2016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 및 모의고사 출제사례문제와
적중문제 비교

(1)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제1문)

① 甲과 乙은 공원을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갔던 여성 A(22세)를 함께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A를 으스스한 곳으로 끌고 간 다음 乙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A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의 위에 올라타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A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도망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때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P1이 A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결과적 가중범 미수)**

② 이를 본 乙은 혼자서 급히 다른 곳으로 도주해 버렸고 甲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A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하였다. 그 장면을 목격한 P1이 도주하는 甲을 100여 미터 추적하여 붙잡으려 하자, 甲은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P1의 얼굴을 세게 때려 P1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甲은 P1의 추적을 벗어난 다음 다른 곳에 도망가 있던 乙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乙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육교 밑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갑자기 뛰어들 B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앞범퍼로 B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B는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도로변에 쓰러졌다.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 문제)**

甲은 B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정차하려 하였으나 乙이 “그냥 가자!”라고 말하자 이에 동의하고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다. 다행히 B는 현장을 목격한 행인 C의 도움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1.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60점)

강 의 특 징**1. 甲과 乙이 A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행위**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출제사례와 적중문제 비교 :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2회 문제와 동일 쟁점]

- (1) 외제차 마니아 甲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 모델의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다가 도저히 돈을 마련할 길이 없자 결국 강도를 하여 외제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甲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발길이 닿는 대로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저녁 무렵에 한강 고수부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甲은 뜻밖에도 고액의 수표와 현금 다발을 가방 속에 지닌 A를 발견하게 되었다. 甲은 나이도 있고, 몸도 약해 보이는 A의 금품을 강탈하기 위하여 뒤를 쫓으며 기회를 엿보던 중, A가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는 어느 한적한 지점으로 들어서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A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 ① 그런데 상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던 甲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甲의 과도한 폭행으로 인하여 A는 피를 흘리며 심한 상해를 입고, 그만 기절을 하였는데, 너무나 당황했던 甲은 단지 기절한 것에 불과한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죄적을 인멸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한강물 속으로 멀쩡하게 살아 있는 A를 유기하였다. 강물 속으로 던져진 A는 결국 익사하고 말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甲은 A의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탈취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있는 힘을 다하여 도주하였다. **(결과적 기중범의 미수)**

→ 사례 (1)에서 甲의 죄책을 논하되, 증거인멸죄와 사체유기죄의 성부는 논외임.(40점)

강 의 특 징
2. 甲이 A 소유의 핸드백을 탈취하고 도주하다가 P1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와 적중문제 비교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5년판 사례 22와 동일 쟁점】

그 후 해고를 당한 丙은 자신이 ‘토사구팽’을 당한 것을 알고는 M에게 양심을 품고 M의 집에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친구인 丁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丁은 이를 승낙하였다.

② 범행 당일 밤 丙과 丁은 M의 집 담을 넘어 M의 서재 안으로 잠입한 후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과 수표 등을 꺼내 가지고 집밖으로 나오던 중 마침 순찰을 돌던 경찰관 A와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丙과 丁 경찰관 A를 보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들을 절도범으로 판단한 A는 丙을 추격하였다. 丙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붙잡히지 않기 위해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A를 강하게 밀치고 도주하였고, 이에 A가 넘어지면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丙과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II. B에 대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甲과 乙의 죄책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와 적중문제 비교 :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사례 1과 동일 쟁점】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C를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C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게 되었다. 甲은 피해자 C를 구조할 것인가를 두고 순간 망설였으나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차량을 정차하거나 C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 문제)**

甲은 사고 당시의 고속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얼마든지 C를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달아나버린 탓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C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 판례에 따라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60점)

강 의 특 징**(2)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제2문)**

甲과 乙은 서울 소재의 참소식신문사(대표이사 김참말)에서 일하는 사회부 기자들이다. 甲과 乙은 연말 특종을 노리고 의사들의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투여실태를 취재하고 있던 중, 다나아 종합병원 원장 A가 유명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다는 풍문을 듣고 2014. 12. 30. 14:00경 취재를 위해 다나아 종합병원으로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대표이사 김참말은 甲과 乙에게 포상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격려하였다. 다나아 종합병원에서 甲과 乙은 마침 유명 연예인 B가 진료실에서 병원장 A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목격하고, 프로포폴 불법투여가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에 甲과 乙은 보다 상세한 취재를 위해 자신들이 투여장면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A와 B에게 인터뷰에 응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는 사생활이라 이야기하기 싫다고 답변하였고 병원장 A는 환자의 비밀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며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이에 甲과 乙은 1)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몰래 진료실에 들어가 프로포폴 1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2)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투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기사는 다음 날 참소식신문 1면 특종으로 게재되었다. 甲과 乙은 이 기사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이들의 불법투여사실을 알림으로써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근절하는 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것이었고, 병원장 A에 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서 다나아 종합병원의 경쟁병원 의사 C가 낸 헛소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형법 제310조에 대한 위전착)** 기사가 보도된 뒤 많은 사람들이 A와 B를 망비난하였고 나중에 기사내용을 알게 된 A와 B는 터무니없는 허위기사를 쓴 기자 甲과 乙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한편 3) 다나아 종합병원 소재지에 있는 보건소 공무원 丙은 참소식신문의 기사를 읽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병원장 A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프로포폴 투여사실 외에 그동안 수집한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A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뇌물에 대한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강 의 특 징

1.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 1) 사실에 대해서 甲과 乙에게 성립가능한 죄책을 제시하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논외로 함], 이때 변호인의 입장에서 甲과 乙의 무죄를 주장하는 논거를 제시하십시오. (10점)

나. 2) 사실에 대해서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십시오. (25점)

다. 위 나.의 경우 甲과 乙의 행위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참말에게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를 제시하십시오. (5점)

4. 3) 사실에 대해서 丙의 죄책을 논하십시오. (10점)

II. 2) 사실에서 甲과 乙의 죄책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출제사례와 적중문제 비교 :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6회 문제와 동일 쟁점]

(1) A 맥주회사의 직원이었다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甲은 기자인 친구 乙과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사실 A회사를 포함한 국내 5개의 맥주회사가 모여서 가격인상담합을 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乙이 자신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자, 甲은 재직시절 5개의 맥주회사 담당자가 가격인상담합을 모의하는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하면서 이를 들려주었다. 녹음된 파일을 넘겨받은 乙은 국민이 물가상승에 민감해져 있는 현시점에서 구독률을 올릴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음날 이를 기사화하였다. 乙의 입장에서 당시 정황상 녹음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이 때문에 녹음내용을 진실로 확신하고 기사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甲이 구조조정에 불만을 품고 A맥주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녹음파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제310조에 대한 위전착)** → 사례 (1)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십시오.(45점)

III. 3) 사실에 대한 丙의 죄책

◎ 변호사시험 5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와 적중문제 비교 :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5년판 사례 22와 동일 쟁점]

某 경찰서 형사반장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설 정보팀의 운영비가 떨어지자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과자 乙에게 뒷조사를 해서 구속시켜 버리기 전에 자기 정보팀에 돈을 기부하라고 하여, 이미 여러 번 그러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 乙은 甲이 운영하는 사설정보팀의 팀장 B에게 금 500만원을 건네주었다. **(뇌물에 대한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 사례 (1)에서 甲의 죄책을 논하십시오. (25점)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험범위 및 강의진도
1	10/6(목)	죄형법정주의,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과실범
2	7(금)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책임론(1)
3	10(월)	책임론(2), 실행의 착수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
4	11(화)	공범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5	12(수)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죄수론, 형벌론
6	13(목)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7	14(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8	17(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9	18(화)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10	19(수)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선택형, 사례형 문제 강의진도는 동일합니다.

※ 사례형 문제의 진도범위는 누적되며, 사례문제의 특성상 진도범위 외의 논점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